남성 언어暴力에 職場 여성 냉가슴

반말투 지시… 낯뜨거운 농담…

남자 상사나 동료들의 성적농담이나 폭언은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부닥치는 커다란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김양, 물 떠와라』『미스리, 어제와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젯밤 어디서 외박한거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부남성 상사나 동료직원들로부터 듣게되는 말들이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명령조의 말투나 성적인 암시를 내포한 농담등 남자상사나 동료가 아무렇지도않게 던지는 「언어의 폭력」이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커다란 장애와 고민거리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여성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많은수의 여성들이 결혼퇴직 성폭행 부당해고 권고사직등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데 이런 압력들이 대부분 「언어폭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姜모씨(29)에게 결혼퇴직을 강요한 D사의 경우 상사가 『당신 남편은 당신이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할만큼 그렇게 무능하냐』는 데서 시작해 입에 담을수 없는 온갖 욕설및 성적인 모욕을 가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전화」 申潤玉간사는 『상담기관까지 찾는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며 외설적인 농담이나 직장상사로부터 노골적인 유혹을 받으면서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 냉가슴을 앓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S상사에 근무하는 車모양(25)은 『남자상사나 동료들의 여직원에 대한 비신사적인 태도는 의도적인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습관화된것같다』고 지적한다。『미스박은 몸매가 예뻐서 보기만해도 기분이 좋단말야』『얼굴은 반반한데 글씨는 왜 이모양이야』등등 신체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업무에다 개인적인 용모 성격등을 뒤섞어 말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여성을 보조적 존재로 보고 장신물로 여기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것이다。

모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高모양(26)도 직장상사들의 性을 암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은근한 농담때문에 직장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의 일은 텔렉스를 치고 번역하는 전문직인데도 남성동료들이 회장 옷차림, 만나는 사람들까지 간섭하고 놀려댈때는 참기가 어렵다는것。

高양은 또 이런 말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몰라 당황하게된다고 말한다。 능담을 받아주면 금방 「끼있는 여자」로평가되고 묵살하거나 반박하면 「속좁은 여자」로 규정된다는 것。

여성의 전화 申간사는 『이런한 「언어폭력」이 동료 아니라 상사로부터 가해질때 경력이나 연령이 낮은 여직원으로서는 더욱 처신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申간사는 직장에서 여성들이 이런일에 부닥칠때는 여직원들의 공동대처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혼자서 부당해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기보다 다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동료여성들과 의논해 남성동료들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문제제기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聖心女大 李승희교수(사회학)는 『여자는 아랫사람이라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직장에까지 연장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무엇보다도 직장여성들 자신의 의식개혁으로 개선해나가야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 첫째 성적인 농담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표시로 오해하는 허술한 의식에서 벗어나고, 둘째 남성들의 「언어폭력」에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자못된 인식을 점잖게 일깨워주어야 하며, 세째로 여직원끼리 논의를 하거나 여성단체등의 조언을 구해 직장의 분위기와 풍토를 바꾸는 「지속적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鄭星姬기자

노골적유혹 업무와 관계 없는 말장난 일쑤
어설픈 수용·묵인보다 집단대책 강구해야